

GROVERSE NEWS

2025.4.23(수) 그로버스 컨설팅 해외뉴스분석팀

[주요 내용]

○ 대선관련

- 한국, 정치 양극화 및 대통령 권한 약화 속 조기 대선 본격 돌입 (WT)
- 이재명 후보 적합도 50% 돌파...보수주자들, 윤전대통령파면여파에 휘청 (SCMP)

○ 한미 관세협상

- 한덕수 권한대행 한미통상협약,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 마련 기대 ” (Reuters)
- 아시아 수출 강국들, 트럼프 관세 감면 협상 추진 (Bloomberg)
-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검손 (독 FAZ)

○ 미국 관세 조치

- 트럼프의 관세는 중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 (NYT 기고)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지위를 내줄 가능성 커져
- 아시아를 잃어버리고 있는 트럼프 (FP 기고)
 - 호주 한국 싱가포르와의 자유 무역 협정 훼손 대미 신뢰 빠르게 약화

○ 세계 경제

- 트럼프 발 무역 충격, 세계 경제 강타 (FT/WP/NYT)
- 트럼프 발 관세 충격, 이미 아시아 경제 강타 (Asia Times)
 - HSBC 수석 이코노미스트 “한국은 올 한 해 내내 역풍에 시달릴 것” 전망
- 트럼프, 파월 연준 의장 공격...금값 사상 첫 3,500달러 돌파 (FT)

○ 한국 경제

- 한국,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 폭은 축소 (Reuters)
- 시멘트 제조 업체 성신양회 주가 103%↑...대선 영향에 정치 테마주 급등 (Bloomberg)

○ 한중 관계

- 중국의 서해 어장, 한국의 반발 확산 (FT/SCMP)
- 중국, 서해 어업 시설 관련 한국의 과장 보도에 공식 입장 발표 (환구시보 / Newsweek)
- 중국, 한국에 희토류 사용 한 제품 美 군수 업체에 수출 금지 요구 (Reuters)

○ 한일 관계

- 올림픽 메달리스트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추천하는 한국의 여행지 (마이니치)

- 한국, 일본총리의야스쿠니신사공물봉납에“깊은유감” (UPI)
- 초당파 의원연맹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도)
- 일본의 가장 흥미로운 문화계 인사 중 일부가 한국계인 이유 (NYT)
- 오키나와현 서쪽 EEZ서 도주 한국 어선 나포 (요미우리)
- 일본 쌀 가격 폭등에 한국산 쌀 22톤 수입 (닛케이)
- 북한
 - 북한 핵 악몽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Politico)
 - ICAO, 북한의인천공항GPS 교란행위규탄(NK News)
- 안보
 - 한국, 미우주기지서정찰위성발사(Newsweek)
- 사회
 - 한국의 불명확한 국적 조항 (LAT)

대선 관련

<WT 4.22 서울발한국정치 양극화 및 대통령 권한 약화 속 조기 대선 본격 돌입 (Andrew Salmon)>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50%를 넘어서며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
- 이러한 높은 지지율은 그가 과거 강경 좌파 이미지를 일정 부분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하고 있음을 시사
-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이 있긴 하나, 이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한편, 국민의힘은 8명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으며, 2차 경선 이후 최종 후보는 5월 3일에 결정될 예정. 현재로선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력한 인물로 평가됨
- 한국은 세 번째 탄핵 사태를 큰 혼란 없이 마무리했지만, 이번 선거의 승자가 물려받을 국내 정치 지형은 매우 분열되어 있음

<SCMP 4.22> 이재명, 대선 후보 적합도 50% 돌파...윤 전 대통령 파면 여파에 휘청이는 보수 주자들 (Park Chan-kyong)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는 리얼미터의 결과가 21일 공개됨

- 전문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보수 진영 내 분열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 후보가 정치 격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
- 주요 경쟁자인 국민의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2.2%, 한동훈 전 당 대표는 8.5%, 홍준표 대구시장은 7.5%를 기록. 세 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

한미 관세협상

<Reuters 4.22 서울발> 한덕수 권한대행 “한미 통상협의를,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 마련 기대” (Hyunsu Yim)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 열리는 한미 통상협의를와 관련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24** 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는 미국 측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상호관세 면제 또는 인하,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 전 기자들에게 이번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다지는 새로운 논의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설명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협의에 참석하며,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할 예정

<Bloomberg 4.22> 아시아 수출 강국들, 트럼프 관세 감면 협상 추진 (Brendan Murray)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회동할 예정
-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징벌적 관세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이 회담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
-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자동차·철강·반도체 기업의 직접투자 확대, 조선·에너지 협력 등 한국이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언급

<독 FAZ 4.22 17면 2단>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겸손 (Tim Kanning)

- 동아시아의 3대 경제 강국 한일중은 대미 관세협상에서 서로 다른 협상 전략을 추진하는 모습
- 중국이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최대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타협안을 모색 중

- 한국은 '겸손'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선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음을 언급
- 트럼프 대통령 같은 파트너와 협상할 때 이들 전략 가운데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성공적일지 예측하기는 어려움
- 다만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 지배 구조를 무너뜨리려는 상황에서, 세계 2위의 조선 강국 한국의 경우, 겸손이 좋은 전략일지도 모름

미국 관세 조치

<NYT 4.22> 트럼프의 관세는 중국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 (**James Crabtree** 국제관계 분석가)

-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공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지역은 없을 것. 이 지역 국가들은 앞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
- 장기적으로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이 아태 지역 안보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내줄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의 역내 정치적, 군사적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음
- 한국과 일본 등 미 동맹국들은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관세를 철회할 수 있으며, 미국 민주당이 4년 후 집권해 관계 재건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 그러나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무역 및 군사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

<FP 4.22> 아시아를 잃어버리고 있는 트럼프 (**Robert A. Manning** 미 스티븐슨 센터 선임연구원)

- 트럼프의 변덕에 따라 부과되었다 다시 해제된 관세는 경제적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트럼프는 호주, 한국,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훼손
- 중국의 군사·정치적 강압 행위가 미국 주도 안보 체계를 강화했지만,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의 방위 관련 요구는 이들 국가의 위험 회피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음
- 미국의 무역과 지정학적 변화가 결합하면서 신뢰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안보 보장국은커녕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실존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아태 지역에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지리적 위치와 경제적 입장이라는 두 가지 요소와 충돌하고 있음

세계 경제

<Financial Times 4.22> 트럼프발 무역 충격, 세계 경제 강타 (Martin Wolf)

- 세계는 기존의 불안정성과 복잡한 세계 경제 구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각국의 대응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 국제통화기금은 22일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트럼프 관세가 부과국에는 생산성 하락과 비용 상승을, 수출국에는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을 초래한다고 지적
- IMF는 세계 경제가 미중 디커플링, 제3국 압박, 달러 이탈, 재정·금융위기, 신흥국 혼란사회 불안, 전쟁 가능성 등 심각한 하방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

* <WP> IMF “ 트럼프 관세 정책, 세계 경제 성장에 큰 부담 ”

<NYT> IMF, 무역전쟁 여파 우려 속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예상

<Asia Times 4.22 도쿄발> 트럼프발 관세 충격, 이미 아시아 경제 강타

(William Pesek)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속에, 한국의 4월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하면서 아시아가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남
- 한국은 세계 경제의 변곡점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 역할. 한국 상황은 미국이 아시아 전역, 그리고 미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
- 한국은 특히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동시에 덮쳐 혼란이 심각. HSBC 프레데릭 노이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내외부 성장 동력이 모두 약화했다고 분석
- 노이만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 올 한 해 내내 역풍에 시달릴 것”이라고 진단

<FT 4.22 홍콩·런던발> 트럼프, 파월 연준 의장 공격...금값 사상 첫 3,500

달러 돌파 (Arjun Neil Alim, Ian Smith & Emily Herbert)

- 금 선물 가격이 22일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금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여겨지는 자산으로, 올해 들어 약 30% 상승
- 이러한 가격 상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연준의 독립성과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결과
- 에와 만테이 ING 애널리스트는 “트럼프가 파월에게 통화완화를 압박하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졌고, 이는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
-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며 금값은 한때 2% 상승해 3,500.05달러를 돌파. 이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이후 금이 최대 수혜 자산 중 하나임을 입증하는 흐름

한국 경제

<Reuters 4.22 서울발> 한국,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폭은 축소

(Jihoon Lee)

- 한국 정부는 **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할 것이라고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 유류세 인하 조치는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되며, 인하 폭은 조정됨
-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은 **23%**에서 15%로 조정

<Bloomberg 4.22> 시멘트 제조업체 성신양회 주가, 103% 급등...대선 영향에 정치 테마주 급등 (Youkyung Lee)

- 시멘트 제조기업 성신양회 주가가 22일 최대 29%까지 급등하며 3일 연속 상승 폭을 103%로 확대
- 이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더 많은 정부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에 힘입은 것
- **6**월 3일 대선은 최근 정치 테마주의 거대한 움직임을 촉발했으며, 이러한 거래의 투기적 성격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경고를 촉발

한중 관계

<FT 4.22 서울타이베이발 > 중국의 서해 어장, 한국의 반발 확산 (Christian Davies & Kathrin Hille)

- 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어업 구조물을 설치하자, 한국 내에서 중국의 강압적 해양 진출 방식에 대한 비판과 분노가 고조 이는 중국이 다른 분쟁 해역에서도 사용하는 '회색지대(grey zone)' 전술의 일부로 해석됨 한국 국회는 지난달 여야 합동 청문회를 열고, 구조물 설치를 강력하게 규탄. 전문가들은 이를 한미 동맹의 작전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전술로 파악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어업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와 전문가 들은 중국의 실질적 영유권 주장의 사전 단계로 인식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

<SCMP 4.22> 한국, 中 서해 구조물에 비례 대응 검토 (Park Chan-kyong)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양식시설 등 유사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비례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 강 장관은 비례 대응과 관련된 것은 해양 영토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
- 한국은 2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한구시보 4.22> 중국, 어업 양식시설 관련 한국의 과장 보도에 공식 입장 발표

- 귀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중국 어업 양식시설 관련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
- 한중 양국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왔음
- 중국 기업이 해당 PMZ에서 어업 양식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한중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님
- 중국은 해양 대화 메커니즘 등 채널을 통해 한국에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기를 기대

* <Newsweek> 중국 외교부, 한국과의 영토 분쟁 공개된 가운데 대응

<Reuters 4.22 서울발> 중국, 한국에 희토류 사용한 제품 美 군수업체에 수출 금지 요구 (Hyunjoo Jin)

-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을 미국 방산업체에 수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한국경제>가 22일 정부와 기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중국 상무부는 전력 변압기,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기차, 항공우주, 의료 장비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요구
- 공문에는 한국 기업이 이러한 수출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

<마이니치 4.22 후쿠오카발> 올림픽 메달리스트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추천하는 한국의 여행지

-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을 맞아 한국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한일 관광 교류의 밤’에 참석차 후쿠오카시를 방문해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
- 역도 올림픽 메달리스트이기도 한 장 차관은 앞으로의 한국 관광에 대해 “한국의 지방 도시만의 매력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

- 장 차관은 “지난해 많은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말하고 단체여행보다 개별여행, 특히 20~30대 여성들의 재방문객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언급
- 이어 국내 관광지로 오는 10월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추천
- 장 차관은 올해 맞이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관련, 양국 국민 간의 왕래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교류를 깊이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UPI 4.22 서울발> 한국,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에 “깊은 유감”
(Thomas Maresca)

- 한국 외교부는 22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사실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

<교도통신 4.22> 초당파 의원연맹 야스쿠니 신사 참배

- 초당파 의원연맹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멤버가 22일, 춘계 예대제를 맞이해 야스쿠니 신사를 일제히 참배
- 의원연맹은 통상, 봄과 가을 예대제나 종전일인 8월 15일에 맞춰 참배해 왔음

<NYT 4.22> 일본의 가장 흥미로운 문화계 인사 중 일부가 한국계인 이유
(Hannah Beech)

- 일본에 거주하는 약 40만 명의 재일 한국인(자이니치, 在日) 출신 예술가와 문화계 인사들이 일본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음
- 이들은 과거 일제 식민 지배와 강제 이주, 일본 내 차별과 배제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예술과 문화 활동을 통해 표현
- 일본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재일교포를 포함해 과거 외국인으로 여겨졌던 이들이 일본 사회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는 과거에 비해 편견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젊은 일본인들은 조부모 세대처럼 강한 반한(反韓) 감정 속에서 성장하지 않았음

<요미우리 4.22 규슈발> 오키나와현 서쪽 EEZ서 도주 한국 어선 나포

- 일본 수산청은 21일 오키나와현 서쪽 연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56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발표

- 해당 어선은 20일 밤 오키나와현 이헤야지마 섬 인근 바다에서 발견됐으며, 일본 어업단속선이 검사를 위해 배를 멈출 것을 명령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
- 일본 해경이 외국 어선을 나포한 것은 작년 7월 대만 어선 이후 처음이며, 한국 어선이 나포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

<닛케이 4.21 서울발> 일본 쌀 가격 폭등에 한국산 쌀 22톤 수입

- 한국 언론은 21일, 일본 내 쌀값 급등에 따라 한국산 쌀 22톤이 일본에 수출될 예정이라고 보도.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출량
- 한국에서 수입된 쌀은 일본 내 농협 법인 공식 사이트와 대형 쇼핑몰,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 한국 언론에 따르면 앞으로 20톤 정도가 더 수출될 전망
- 일본 총무성이 18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92.1% 급등해, 집계를 시작한 1971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

북한

<Polifico 4.22> 북한 핵 악몽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Robbie Gramer & Eric Bazail-Eimil)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이 “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됐으며, 국제사회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
- 그로시 사무총장은 22일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해 국제사회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
- 그는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급 외교가 필요하다고 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다시 접촉해야 한다고 제안

<NK News 4.22> ICAO,북한의 인천공항 GPS 교란 행위 규탄 (Joon Ha Park)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올해 남북 국경 근처에서 위성항법장치(GPS) 신호를 교란한 북한에 경고를 전달할 예정
- ICAO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열린 제234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21일 밝힘
- 외교부는 이 결정이 GPS 교란 행위를 계속하는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이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다고 설명

안보

<Newsweek 4.22> 한국, 미 우주기지서 정찰위성 발사 (Ellie Cook)

- 한국 국방부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을 이용해 새로운 군사용 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발표
- 이번에 발사된 위성은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한국의 올해 계획된 5기 정찰위성 가운데 네 번째 위성으로, 스페이스X와의 계약에 따라 추진
- 한국군은 이 위성들이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선제공격을 포함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

사회

<LAT 4.22 서울발> 한국의 불명확한 국적 조항 (Max Kim)

- 매주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한국 국적 문제와 관련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 상당수는 한국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젊은 남성들
- 일부는 갑자기 한국으로 배치될 수 없는 미국 군대의 일원이고, 그 외 일이나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나 군복무에는 관심이 없는 이들
- 한국 국회는 2005년 군복무를 완료하기 전에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음
-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한국 국적은 과거 22세가 되면 자동 만료되었으나 현재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이전에 포기하지 않으면 38세까지 국적을 유지해야 함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5만 명의 해외 거주 한국인이 이 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